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다시 만나 예배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2. 예배 후 9월 정기 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3시 10분, 사무실).
3. 다음 주 예배 후 공동체 인도자 성경 공부가 느헤미야실에서 있습니다(3시 5분, 두 번째 교재 1과 연습).
4. 공동 성경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3장씩 정해진 범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이번 주 범위는 시편 114-134편입니다).
5. 다음 주일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임원들은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6. 공동체 학습방법 성경공부(TEE) 화요일 저녁반과 수요일 낮반, 주일반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반은 오늘 예배 후 3시 50분부터 느헤미야실에서 있습니다.
7. 오는 10월 1일(목)은 한국의 추석입니다. 오늘 점심에 송편을 맛있게 드시면서 향수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김상덕 집사, 박제란 권사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등록된 새 교우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영애 집사(신초록, 초원, 희웅)
15 Market Rd 021-234-7399 3여선교회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0월교회사역일지
10월 18일 (주일) 성찬주일
10월 25일 (주일) 감사주일, 권사 기도회
10월 28일 (수) 1,2 남선교회 헌신예배

10월 기도순서
10월 4일 (주일) 현석호 장로
10월 7일 (수) 최희숙 집사
10월 11일 (주일) 김철재 집사
10월 14일 (수) 한누리 집사

10월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광희, 김순자
이광희, 김순자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39호 2020.09.27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금 주 기 도 오혜신 자매
다음 주 일 박상영 형제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마태복음 11:28-30 ---	인도자
✧ 찬 송	--- 64장 ---	다함께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269장 ---	다함께
대 표 기 도	-----	손조훈 집사
성 경 봉 독	--- 창세기 13:10-18 ---	인도자
찬양대찬양	--- 우리 주십자가 ---	나무십자가찬양대
설 교	--- 다른선택 다른결과 ---	이태한 목사
찬 송	--- 391장 ---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 응 답 송	--- 310장 (1,4절) ---	다같이
✧ 축 도	-----	이태한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정혜숙 권사
성 경 봉 독	야고보서 3:1-12
설 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태한 목사
찬 송	542장
주 기 도	다같이

이번 주는 Prayer Together 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북한: 박해 감시 단체 오픈 도어는 최근 북한 주민들이 ‘유령병’이라고 명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사역자 사이먼 형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폐쇄령을 내리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 상당수가 암시장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들이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열려 있어도 구입할 수 있는 식료품이 거의 없고, 가격은 4배가 넘게 뛰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폐쇄령, 부족한 식량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또한 폭우, 산사태, 폭염을 겪었다. 올해 북한 주민들은 정말 고통스럽다. 그들은 주민들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범죄 행위에 의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법무부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9개월의, 출산 직전 아기까지 낙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태아를 죽이는 낙태에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영혼이 있는 태아 살인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이며, 부작위죄(不作爲罪,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를 짓는 것에 해당합니다. “너는 말 못 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 31:8)

뉴질랜드: 선거를 9월 19일에서 10월 17일로 연기함으로 인해 아래를 포함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후보자: 후보자 등록 기간 마감도 4주간 연기되어 이 기간에 후보자가 바뀐다면 지역구 국회의 원 선거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길어진 정보 전달 기간: 특히 안락사와 대마초 합법화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락사 및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현 법률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제대로 깨닫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건강 목적인 치료용 대마초는 이미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국민투표 주제: 기호용 대마초 및 안락사. 투표하기 전, 사람들이 충분히 이 국민투표와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여 지혜롭고 분별력과 기도로 준비하여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종식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성도들이 풀려나도록.
- 낙태의 위기에 있는 태아들의 피난처를 예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들을 지원하도록.
- 뉴질랜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 투표 방향에 대한 동기를 얻고 실천하게 하소서.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2. 말씀에 굳게 서서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며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 영육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회복이 있도록.

2020년 9월 20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예배자에게도 갈등은 있다> 창세기 13:1-9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 위험한 일을 겪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1)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였습니다(4).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도로 낮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호 6:1). 신앙의 실패자요 무너져 버린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형에서가 무서워 밤새 기도 드린 아곱도(창 32:11)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형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답답한 때이지만 이때야말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회복될 것은 없는지 살펴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잠 8:17)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고난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2) 그러나 예배자에게도 갈등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자가 되었는데도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6). 가족과 은금의 풍부함에서 시작되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7). 아브라함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으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살았기에 이 가치관의 차이에서 갈등이 비롯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는 롯과 같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26:39) 갈등하셨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곧 내 믿음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세상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서도 갈등도 없습니다.

3) 갈등 해결법: [1]나를 포기해야 갈등이 풀립니다(13:9).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의 모든 주권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이 갈등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7).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이 조롱을 받을까봐 자기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빌 2:7) 기억하며 내 것을 포기할 때 갈등은 해결됩니다. [2]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해결됩니다(13:8).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골육이라, 한 핏줄이라”(13:8) 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작은 자를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떠나가는 것인데 자기의 자존심에서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갈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참 예배자 되어 수많은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갈보리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13: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